



붉나무

(*Rhus chinensis*, 옷나무과)



〈붉나무 화서. 한 화서에 꽃이 40,000개 정도 달려있다.〉

붉나무는 8월 하순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약 15일간 연한 노란색의 꽃이 많이 피는 밀원식물이다. 숲이 우거지면서 싸리가 밀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 밀원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금년 경북 영천지역에서는 8월 25일에 피기 시작하여 9월 10일경까지 약 보름동안 피었다. 화서 하나를 잘라 꽃을 헤아려보았더니 화서 하나에

40,000개쯤 되었다. 화서당 꽃은 이렇게 많지만 화서는 가지 끝에 하나씩 나오며 가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화서 하나에 달린 열매도 6,000개쯤 되었다.

붉나무꽃이 피는 이 기간은 꽃피는 식물이 별로 없고, 장마기가 끝난 기간이라 가을 채밀을 하고 월동준비를 시작하면 될 듯하다. 그러나 금년에는 장마기보다 장마가 끝나고 훨씬 더 많은 비가 왔다. 금년에는 장마가 대구지역에서는 6월 23일에 시작되어 7월 20일에 끝났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6월 23일부터 이틀간, 7월 5일부터 이틀간, 7월 19일 하루, 총 5일간 비가 내렸다. 그러나 장마가 끝난 8월 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11일동안 그치지않고 내려 하루 평균 50mm 썩 내렸다. 이어 27일과 28일에 조금씩 내렸고, 8월 31일에는 단 하루에 일년 강수량의 1/3 이상이 내려 큰 피해를 끼쳤다.

붉나무는 우리 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낙엽소교목으로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에도 분포하며, 높이 6~7m 까지 자란다. 잎은 호생하며 대형의 기수일회우 삼복엽으로 길이가 30~40cm에 달한다. 소엽은 7~13매이고 장타원형으로 거치가 있다. 소엽은 길이 5~12cm로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든다.

붉나무는 옷나무과로, 옷나무과에는 붉나무를 포함하여 옷나무, 개옷나무, 검양옷나무, 산검양옷나무가 있다. 이 중에서 옷이 제일 심하게 오르는 나무는 옷나무이다. 붉나무도 옷나무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엽축에 날개가 있어 쉽게 구별된다(사진 참조).

가지 끝에 원추화서가 나와 꽃이 피고, 자웅이주이고, 열매는 핵과로 10월에 흰빛으로 익으며, 직경 4mm로 털이 밀생한다. 화밀은 많고, 화분은 중 정도 된다고 한다. 꿀의 색은 노란색이지만, 자동차엔진 오일처럼 연하면서도 맑은 푸른색을 띠기도 한다고 한다.

번식은 종자와 뿌리삽목으로 할 수 있다. 과피를 제거한 후 노천매장을 하였다가 파종하면 발아되고 일부는 2년만에 발아되기도 한다. 진한 황산에 30분~1시간정도 침적시킨 후 물로 씻은 후 노천매장을 하면 발아율이 높아진다.

붉나무는 산록부의 양지쪽에 잘 자란다. 가지가 다소 불규칙적으로 자라고, 큰 나무 주변에 어린 묘목이 많이 자라므로 옮겨심어도 된다. 관리는 주변에 있는 이 나무보다 큰 나무를 잘라주는 정도로도 가능할 것이다. 잎에 갈색의 울퉁불퉁한 벌레집이 생기는데, 이것을 오배자라고 하여 탄닌이 생산된다. 따라서 이 나무를 오배자나무라고도 부른다.

번식과 관리가 쉽고, 3년생이 되면 꽃이 피며, 꿀이 많으니 봉장주변에 붉나무 밀원이 조성되면 초가을에 채밀할 수 있을 것이다.



〈붉나무 잎. 색이 연한 것은 뒷면으로 돌려놓은 것이고, 그 바로 위 엽축에 날개가 보인다. 이 날개를 보고 이 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붉나무 수꽃의 현미경사진. 붉나무 꽃은 매우 작아 75배로 확대하여 찍은 사진이다.〉